

## 세계도자비엔날레 개막식 연설

존경하는 경기도민과 도자 예술인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제2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처럼 뜻깊은 세계인의 도자 축제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행사를 준비해 온 손학규 경기도 지사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1천만 경기도민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한 작품을 다듬어 이번 축제에 참여해 주신 도자 예술인 여러분께도 각별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해외에서 오신 도예인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친애하는 도자 예술인 여러분,

이곳 이천을 비롯한 광주와 여주는 우리 조상들의 예술혼이 살아 숨쉬는 역사의 고장입니다. 세계인의 찬사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도자 문화의 산실입니다. 이러한 역사와 전통의 토대 위에서 열리는 이번 비엔날레는 그 의미가 매우 큼니

다. 우리 도자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각국의 도예인들이 교류하는 세계 도자 문화의 제전입니다. 국내외 460여명의 작가들이 2,400여점의 작품을 통해 보여주는 다양한 전시와 학술행사는 우리의 도자예술을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국제공모전’ 과 ‘세계현대도자전’, 그리고 ‘조선도자 500년전’, 하나하나가 도예인들의 창작열정을 느끼게 하는 풍성한 볼거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관람객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은 도자 문화의 활성화와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행사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은 바로 ‘어울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의 예술 도자와 광주의 왕실 도자, 그리고 여주의 생활 도자가 한데 어우러져 한국 도자의 진수를 세계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역문화축제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이 축제를 통해 우리의 문화와 문화관광산업의 무한한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은 바로 지식기반과 문화창조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독창적인 문화유산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식문화강국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적 저력을 국가발전의 성장동력으로 키워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도자 산업은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부가가치 또한 매우 높습니다. 세계 도자기 시장 또한 50조원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도자 산업이 우리의 문화관광산업 발전을 앞장서서 이끌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이와 함께 문화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는 순수예술과 전통문

화의 진흥에도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세계 5대 문화 산업강국' 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창조의 열정, 전통의 격조, 생활의 향기' 를 주제로 열리는 이 행사가 큰 성공을 거두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국내외에서 오신 참가자 모두에게 즐겁고 보람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